

‘음운’ 개념 수업

[수업 청사진]

- 개념: 음운(개념분류)
- 대상 학습자: 고등학교 2학년
- 수업 수준: 3
- 결정적 특성: 1.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2. 머릿 속에 같은 소리로 인식되어 있는 추상적·공통적 말소리이다.
- 가변적 특성: 1. 음운은 소리 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구분된다. ok
2. 음운은 언어권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방법	실행
I. 제시	
1. 전형적 예	‘달’, ‘딸’, ‘탈’ 등의 단어 카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보여주며, 각각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요소로 인해 달라지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2. 주의 집중	단어 카드는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쉽도록 자음과 모음, 혹은 초성, 중성, 종성의 색깔을 달리하여 보여준다.
3. 개념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에게 ‘음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스스로 해 보도록 한다. 생소한 문법 용어에 대해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면, 앞서 제시한 전형적 예로써 개념을 추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생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그에 코멘트를 더함으로써 개념의 결정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학생들의 답변 내용은 유목화하여 왼쪽 게시판에 판서로 정리한다.) ▪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음운’에 대한 개념 중 결정적 특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Powerpoint 자료를 보여준다.
4. 파악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적인 예로 다른 단어 카드를 다시 보여주면서 ‘음운’의 결정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 이때 개념정의 자료는 다시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회상 및 기억하도록 한다. ▪ 3에서 판서되었던 학생들의 발표 내용 중 결정적 특성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을 가변적 특성과 연관지어 설명하면서 가변적 특성 자료를 Powerpoint로 제시한다.
5. 주의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벌, 불’의 단어카드를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의미상의 차이를 발표하게 한다. ▪ ‘눈, 눈.’의 말소리를 들려주고, 학생들에게 의미상의 차이를 발표하게 한다.
6.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운의 결정적 특성에 비추어 ‘달, 딸, 탈’, ‘발, 벌, 불’은 각각 어떠한 차이점을 갖는지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운의 결정적 특성에 비추어 ‘말, 말:’은 어떠한 차이점을 갖는지 생각해 보게 하며, 앞선 예와의 변별점을 설명한다.
7.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의 peach, beach, 외국인이 말하는 ‘바보[pabo]’ 소리를 들려주고, 영어권 화자와 우리나라 화자의 음운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설명한다.
8. 예가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취]의 재채기, [휴]의 한숨 소리를 들려주고, 이는 글자로 표기할 수 없는 비분절적인 소리이므로 ‘음운’에 속할 수 없으며 ‘음향’에 속함을 설명한다.
II. 연습	
1. 연습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의 단어를 제시한 뒤, 그 단어의 특정 음운을 교체하여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다양한 단어들을 생성해 보도록 한다.
연습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문을 제시한 뒤, 소리의 길이, 높이, 세기, 억양 등을 달리하여 짝과 함께 서로 다른 의미를 표현해 보고, 해당 의미를 알아맞히는 활동을 한다.
연습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에만 있는 음운 혹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음운을 찾아보고 발표한다.
2.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습 가’는 ‘음운’의 결정적 특성과 관련됨. ‘연습 나’는 ‘음운’ 개념의 확대적용능력 배양과 관련됨. ‘연습 다’는 ‘음운’의 가변적 특성과 관련됨.
III. 피드백	
1. 동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단어 카드, PPT, 음성 소리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주의집중을 유도한다. 학생들의 의견 발표 시 주의 깊게 듣고 적극적인 반응 태도를 보인다. 학생들의 발표 내용은 핵심어를 추려 판서하여 정리한다. 이때 비슷한 내용의 답변들은 유목화하여 함께 정리한다. 그룹 활동 시 순회를 하며, 독특하거나 창의적인 의견 혹은 시사점이 있는 의견들이 나온 경우 이를 기억했다가 해당 그룹의 학생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2.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의 대답에는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따뜻한 시선과 부드러운 말투로 격려하고 칭찬해 준다. 오답을 발표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물어봄으로써 오답을 하게 된 사고과정을 교정해 주도록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임을 분명히 하여 관용적 태도를 보여준다. 또 교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오개념을 자연스럽게 교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정보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청각 기자재를 사용하여 제시하며, 자료 제공 시 사전에 기자재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한다.

[수업 교안]

방법	실행	시간
I. 제시		
전형적 예	<p>교사: (칠판에 단어 카드를 붙여 놓고) 여러분, 칠판에 있는 세 단어 카드가 보이나요? 우리 한번 각각 읽어 볼까요?</p> <p>학생: 달, 딸, 탈</p> <p>교사: 네, 그래요. 이 각각의 단어들은 의미가 어떻나요? 달은 무엇이죠? 딸은? 탈은?</p> <p>학생: 달은 하늘에 떠 있는 거요. 딸은 아들딸의 딸. 탈은 화회탈 같은 거요.</p> <p>교사: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각각의 단어들은 어떤 요소 때문에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나요?</p> <p>학생: ‘ㄷ, ㅌ, ㅌ’ 때문에 의미가 달라져요.</p> <p>교사: 맞습니다. 중성이다 중성은 모두 같은데, 초성에 있는 ‘ㄷ, ㅌ, ㅌ’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죠. 이게 바로 오늘 배울 ‘음운’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재미있는 사례 하나를 이야기해 줄게요. 5년 전에 선생님이 한국어교사로 귀여운 호주 남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호주 남학생이 좋아하는 여자친구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당신의 탈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온 가족이 이해를 하지 못해 답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난 걸까요? 이번 수업시간이 끝나게 되면, 이 해프닝의 이유를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보죠.</p>	4분
주의 집중	<p>단어 카드는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쉽도록 자음과 모음, 혹은 초성, 중성, 종성의 색깔을 달리하여 보여준다.</p>	
개념 정의	<p>교사: 그렇다면 오늘 배울 핵심 개념인 ‘음운’은 무엇일까요?</p> <p>학생: ㄷ, ㅌ, ㅌ 같은 거요.(이하 답변 내용은 교사가 유목화하여 왼쪽 게시판 한켠에 판서로 정리한다.)</p> <p>교사: ㄷ, ㅌ, ㅌ은 각각 단어 카드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죠?</p> <p>학생: 각각의 단어의 의미가 달라져요.</p> <p>교사: 네, 여러분들이 말한 것들이 바로 ‘음운’의 핵심 개념입니다. PPT 화면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음운은 최소의미변별단위, 즉,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p>	2분
파악 단계	<p>교사: 다음 단어 카드를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p> <p>학생: 발, 벌, 불</p> <p>교사: 잘 읽었어요. 이 각각의 단어들은 어떤 요소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지나요?</p> <p>학생: ㅍ, ㅍ, ㅍ</p> <p>교사: 그렇죠. 그럼 각 단어들의 의미를 변별하는 음운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p>	3분

	<p>학생: ㅏ, ㅑ, ㅓ</p> <p>교사: 자, 이번에는 앞에 앉은 친구들부터 이 단어를 한번 읽어볼까요?</p> <p>학생: 발-발-발-발-발(앞에서부터 단어를 읽는다.) ✓</p> <p>교사: 네.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학생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 즉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p> <p>학생: 발이요.</p> <p>교사: 네, 발. 바닥에 닿아있는 우리의 발. Foot. 동일한 한가지 의미만 떠오르죠. 때문에 음운은 머릿속에 같은 소리로 인식되어 있는 추상적·공통적 말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교사: 그럼, 정리해 볼까요? 음운은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죠?</p> <p>학생: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최소의 소리 단위요. ✓</p>	
주의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벌, 불’의 단어카드를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의미상의 차이를 발표하게 한다. ▪ ‘눈, 눈:’ 등의 말소리를 들려주고, 학생들에게 의미상의 차이를 발표하게 한다. 	
예	<p>교사: 앞서 우리는 다양한 음운의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말에서 음운에는 무엇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p> <p>학생: ㄷ, ㅌ, ㅎ 등과 같은 자음, ㅏ, ㅑ, ㅓ 등과 같은 모음이 있어요.</p> <p>교사: 맞아요. 이렇듯 우리말의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죠. 음운은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자음과 모음같이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있는 음운을 분절 음운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없는 건 뭐라고 할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p> <p>학생: 비분절 음운.</p> <p>교사: 네. 지금 선생님이 두 단어를 발음해 볼 거예요. 뜻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눈’. ‘눈:’. 한겨울이예요. 평평 눈이 내릴까요? 눈:이 내릴까요? 하늘을 바라보다 눈에 눈:이 들어갈까요? 눈:에 눈이 들어갈까요?</p> <p>학생: 눈은 eye, 눈:은 snow예요.</p> <p>교사: 그렇죠. 보세요, 동일한 ‘눈’이지만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죠? 이런 것이 바로 비분절 음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p>	4분
다양성	<p>교사: 이러한 음운은 언어권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peach는 뭐죠? beach는요?</p> <p>학생: peach는 복숭아, beach는 해변이요.</p> <p>교사: 그렇죠. 영어에서는 그럼 어떤 음운이 의미를 변별하는 거죠?</p> <p>학생: p와 b요.</p>	4분

	<p>교사: 음운의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네요. 그럼,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보여줄게요. 이 영상 속의 외국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외국인이 ‘파보[pabo]’라고 말하는 영상을 보여준다.)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웃었는데, 왜 웃었나요?</p> <p>학생: 발음이 이상해요. ‘파보’라고 해요.</p> <p>교사: 맞아요. 여러분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말의 ‘ㅂ’은 영어의 /p/로 발음되기도 하고, 유성음화 환경에서는 /b/로 발음되기도 해요. 영어에서는 /p/와 /b/가 서로 다른 음운이므로 이 외국인은 지금 ‘ㅂ’의 /p/와 /b/를 구분해서 발음했지만, 우리는 모두 어떻게 머릿속으로 인식하죠?</p> <p>학생: ㅂ이요.</p> <p>교사: 그렇죠. 이렇듯 머릿속에 같은 소리로 인식되어 있는 추상적·공통적 말소리인 음운은 언어권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J</p>
<p style="text-align: center;">예가 아닌 경우</p>	<p>교사: 그럼 이번에는 다른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에취]의 재채기, [휴]의 한숨 소리를 들려준다.) 무슨 소리일까요?</p> <p>학생: 재채기 소리요. 한숨 소리요.</p> <p>교사: 잘 알고 있네요. 그럼 이런 소리들은 음운에 속할 수 있을까요?</p> <p>학생: 아니요.</p> <p>교사: 왜 음운에 속하지 못할까요?</p> <p>학생: 글자로 표기할 수가 없어요. 비분절적인 소리예요. 뜻을 구별할 수 없어요.</p> <p>교사: 역시, 집중한 만큼 이번 수업 내용을 잘 학습하고 있군요. 이제 여러분이 학습한 ‘음운’의 개념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진행해 봅시다.</p>	<p style="text-align: right;">2분</p>
II. 연습		
<p style="text-align: center;">연습 가</p>	<p>교사: 자, 이제 선생님이 단어 몇 개를 제시할 거예요. ‘곰, 오리’ 이 단어에서 특정 음운을 하나만 교체하여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다양한 단어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각자 만든 다양한 단어들은 짝과 함께 토의하여 예를 풍부하게 만들어보고, 짝활동으로 빙고 게임을 해 보도록 할게요.</p> <p>학생: 놉, 돔, 몸, 봄, 솜, 줌, 흙, 감, 검, 금, 김, 곡, 곧, 골, 곳, 공, 꽃, 고리, 오래, 우리 등</p> <p>교사: 재밌었나요? 지금까지 분절 음운의 개념을 이용하여 활동을 해 봤죠.</p>	<p style="text-align: right;">18분</p>
<p style="text-align: center;">연습 나</p>	<p>교사: 자, 이제 비분절 음운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해 보죠. 학습지에 있는 다양한 단어와 문장들을 보고 짝과 함께 소리의 길이, 높이, 세기, 억양 등을 달리하여 표현해 보세요. 한 사람</p>	<p style="text-align: right;">3분</p>

	<p>이 표현을 하면, 다른 한 사람이 그 의미를 추론하여 말해 보세요.</p> <p>학생: 말, 말:, 밤, 밤:, 성인, 성:인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p>	✓
연습 다	<p>교사: 이제 인터넷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에만 있는 음운 혹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음운을 하나씩만 찾아 발표해 봅시다.</p> <p>학생: 우리나라에만 있는 음운으로는 ‘ㄱ, ㅌ, ㅍ, ㅈ, ㅊ’와 같은 된소리가 있으며, 우리나라에 없는 음운으로는 /f/, /v/, /z/ 등이 있습니다.</p> <p>교사: 네, 음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토대로 잘 조사하여 발표했군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초반부에서 음운의 개념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게시판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중에서 적합했던 개념 혹은 잘못 생각했던 개념은 무엇인가요? 오개념은 그럼 같이 정정해 볼까요?</p> <p>학생: 게시판에 있는 음운의 적절한 개념 정의나 사례를 찾아 발표하고, 부적절한 정의나 사례는 바르게 고쳐 발표한다.</p> <p>교사: 자,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의 도입부에서 이야기한 귀여운 호주 남학생 기억나나요? 그 호주 남학생은 왜 말실수를 하게 되었던 건가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는 된소리가 없어서, ‘당신의 딸 주세요’, ‘당신의 탈 주세요.’를 변별하지 못해 벌어진 해프닝이었던 것이지요. 한 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음운의 개념을 바탕으로 음운의 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p>	10분
III. 피드백		
	<p>피드백은 수업 청사진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함.</p>	

피드백?

[교안 개발 이유]

'음운'은 최소의 의미 변별 단위(머릿속에 같은 소리로 인식되어 있는 추상적, 공통적 말소리)로서, '음운론' 전체를 학습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때문에 전국학력평가나 대수능 모의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음운론' 단원에서 빈출되는 평가 요소이기도 합니다. 음운은 음향, 음성과는 차이점이 있고(개념),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뉠 수 있으며(종류), 언어권마다 서로 다른 음운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특징). 음운의 결정적 특성은 '말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고, 가변적 특성은 분절 음운에 속하는 자음과 모음, 비분절 음운에 속하는 장단, 억양 등의 구체적 실례를 통해 추출할 수 있습니다.

본 교안은 우선 알기 쉬운 사례로써 학생들이 직접 음운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초반에 음운에 대해 떠올린 개념들을 왼쪽 게시판 한켠에 정리하고, 수업 마무리에는 그러한 학생들의 답변 내용에 대해 적절한 것을 찾고 부적절한 것은 바르게 고치는 작업을 통해 개념을 명료화하고 오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독려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업 도입부에서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과 관련된 교사 개인의 에피소드를 제시하여 지적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킨 뒤, 수업의 끝에서 수업의 핵심 개념인 음운과 관련하여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는 등 수업의 도입부와 마무리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 주의집중 및 흥미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청각 및 매체의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적 인지의 명료화를 돕기 위해 초성, 중성, 종성별로 색깔을 달리 한 단어 카드의 사용, 직접 여러 학생들이 단어를 말하고 듣는 과정에서 직접 음운을 머릿속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청각적 기법, 말소리나 재채기소리, 한숨소리를 들려주거나 영상을 보여주는 등 학습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자극과 주의집중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안 구성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인 부분은 학습 활동 고안입니다. 교사가 음운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음운의 개념을 느끼고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활동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분절 음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직접 음운을 교체하여 최소대립쌍을 만들어보고 공유하게 함으로써 음운의 개념이 확장되고 풍부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게임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학습 활동의 재미까지 더했습니다. 비분절 음운은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는 없지만 의미를 변별한다는 점에서 짝과 함께 직접 표현해보고 추론해 보기,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언어권의 음운 탐색해 보기 등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흥미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참고 문헌]

임철일(2015). **교수설계이론과 모형(제2판)**. 서울: 교육과학사.